



2021년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엄

# 금융시장에서의 펀테크의 역할과 잠재리스크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14:00~16:00

개최방식 : ZOOM 채널을 이용한 On-line 세미나 (회의 ID: 879 4197 1530, 회의 암호: 6944954)

주최 :  **한국금융학회**

후원 :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진행사회 : 김남종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14:0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회사 : 이영섭 회장 (한국금융학회)</li></ul>
14:10~14:40	<p><b>주제발표 :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의 역할과 잠재리스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표 : 구본성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li></ul>
14:40~15:40	<p><b>패널토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 회 : 이인호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li><li>•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강경훈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부)</li><li>곽영기 교수 (IBK기업은행 인재개발부, 전 핀테크 사업부 부장)</li><li>윤병원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li><li>전재식 최고기술책임자 (CTO)(핀크)</li><li>정유신 교수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li><li>조재박 전무 (KPMG 디지털본부)</li></ul></li></ul>
15:40~16:00	<p><b>토론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b></p>

\*가나다 순

#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역할과 잠재리스크

2021. 1. 22

구본성

\*본 발표내용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본 발표내용은 구본성(2020),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 I . 서

II. 핀테크의 역할, 기대, 전망

III. Big(+fin)Tech와 금융성 점검

IV. Big(+fin)Tech와 금융산업의 잠재이슈

V. 금융안정성 제고와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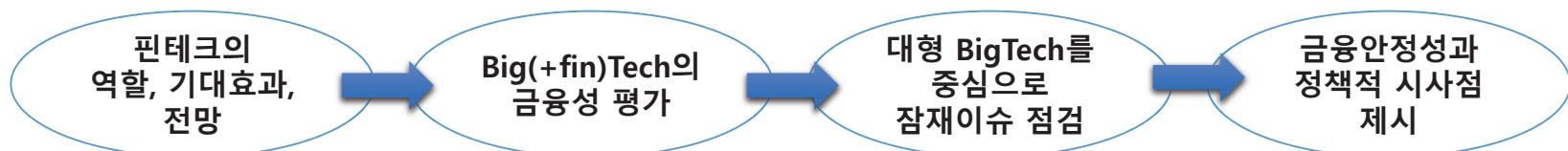
## I. 서: 혁신과 경쟁, 안정성

---

- ◆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에 의해 새로운 시장구조와 서비스 체계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 펀테크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혁신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technological advance)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과의 직접적인 경쟁과 협업**이 불가피
- ◆ 펀테크에 의한 혁신과 협업구조가 플랫폼 형태의 BigTech의 참여로 인해 금융기능의 역할분담, 시장지배력 및 인프라, 시스템 안정성, 금융정보의 활용 등에 있어서 **복합적인 국면**으로 전환
  - (역할분담) 펀테크의 전문화 전략에 의한 긍정적인 성과와 효과가 BigTech의 참여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의 역할분담(예: 제조와 판매 혹은 정보효과 등)이 변화
  - (시장구조 및 인프라) 펀테크의 수용과 협업 중심의 경쟁구조가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등을 통한 독과점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 증가 등이 초래
  - (시스템 안정성) 전문형 펀테크의 신뢰도 확보나 대형 BigTech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시스템의 성격이나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
  - (개인 및 금융정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의 축적과 활용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등

## I. 서: 혁신과 경쟁, 안정성(계속)

- ◆ 본 발표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촉발된 펀테크의 혁신에 따른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Big(+fin)Tech의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구조 및 역할분담에 따른 영향을 금융의 고유성·안정성 중심으로 주요이슈를 논의
- ◆ 우선 펀테크에 주도되는 금융혁신의 특성과 모델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에 의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펀테크에 의해 촉발된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가능한 혁신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는 관점을 유지
- ◆ 다음으로 펀테크와 플랫폼의 결합에 의한 대형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가 기존의 펀테크를 포함한 금융산업의 중개역할이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고유성 또는 안정성 측면에서 잠재이슈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평가
  - 대형 펀테크 및 BigTech의 금융성(the role of financial intermediation)을 평가
- ◆ 끝으로 펀테크 및 BigTech 등의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



3

## 목 차

---

I. 서

**II. 핀테크의 역할, 기대, 전망**

III. Big(+fin)Tech와 금융성 점검

IV. Big(+fin)Tech와 금융산업의 잠재이슈

V.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디지털화와 금융의 가치창출

- ◆ 디지털화는 기존의 기술발전에 의해 주도된 금융서비스 혁신과 차별화된 측면이 존재
- ◆ 디지털 금융의 차별성은 다음의 5가지와 밀접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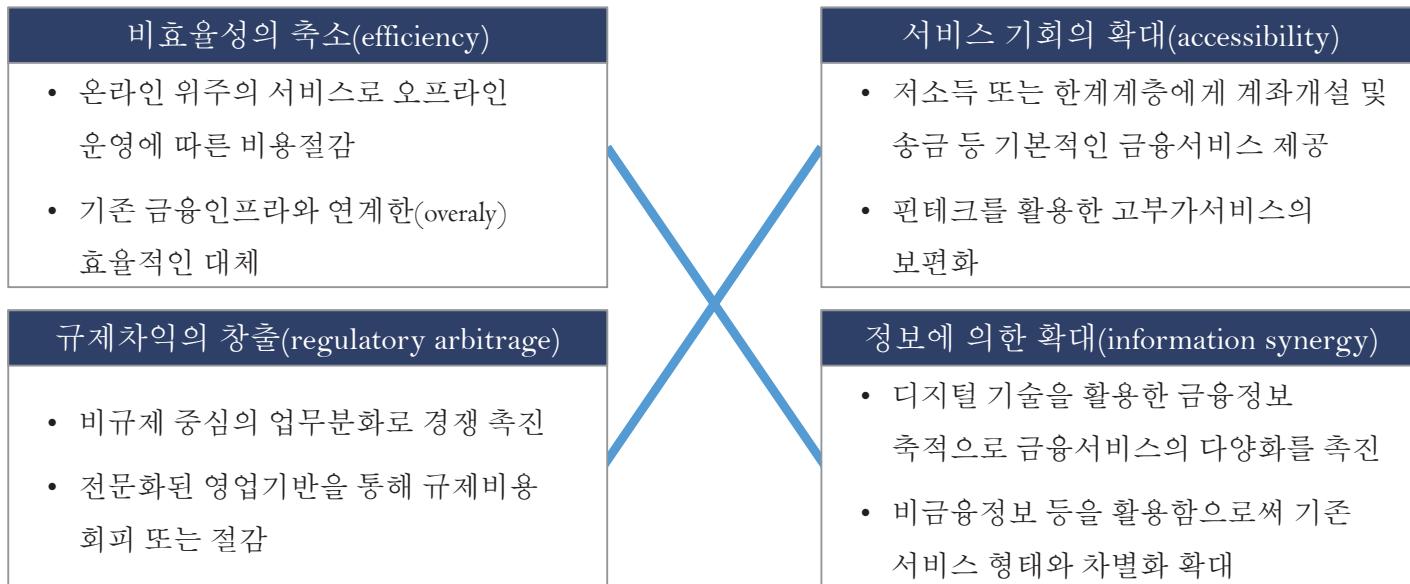
  - 오프라인 서비스의 완전한 대체(substitution)
  -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면적 서비스를 제공 (multiple relationship)
  - 금융업무의 자유로운 연계•분리•결합을 통한 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business re-alignment)
  - 디지털 자산화를 통한 범위의 확대(extended coverage)
  -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국경간 거래의 촉진(openness)

- ◆ 특히 디지털화의 정보효과가 기존의 금융혁신과 달리 시장구조나 금융소비자, 그리고 기술효과(technology effect)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잠재적 이슈)
  - (연결성에 의한 비금융정보의 결합)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보의 축적은 정보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비금융정보의 활용 및 비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
  -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AI, ML, 분산장부 등 분석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신서비스 창출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정보의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혁신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의 축적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력도 심화시킬 소지

\*구본성 이순호 (2020), pp. 5~9의 내용을 재정리

## 핀테크의 혁신과 기대효과

- ◆ 핀테크에 의해 주도되어 온 혁신의 기대효과는 기존의 금융산업에 있는 내재하고 있던 비효율성이나 고객에 대한 불충분한 서비스 또는 불편한 접근성, 규제의 불투명성 또는 제약, 또는 금융정보의 제한 등을 극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금융의 범위**(the perimeter of financial service)를 확장(Frost(2020))



## 핀테크의 혁신과 기대효과 (계속)

- ◆ 이러한 핀테크의 혁신모델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강화에 따라 주요업무를 대체, 전환, 업그레이드(upgrade) 하는 형태로 확산(성장단계 전환)
  - 초기 단계는 주로 소형, 전문기업, 특화 형태의 벤처형 모델로 출발하였으나, 현재의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대등하게 협업할 수 있는 시장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
- ◆ 핀테크의 시장위상 개선은 사업모델의 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성장, 디지털 고객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기성과의 창출, 금융기관의 위기대응적 수용에 따른 경쟁효과,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의한 활성화 등에 기인(**현재까지의 우호적인 환경**)
  - (규모의 경제) 소액결제나 해외송금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기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시장을 형성
  - (고객의 디지털화) 지점이나 ATM 등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은 축소되는 반면, mobile 또는 사이버 금융거래를 통해 대체되는 디지털 고객기반이 주류를 형성(\*코로나 위기로 가속화)
  - (기존 금융기관의 대응) 핀테크과의 협업, 인수, 또는 유사 서비스의 확충 등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정책적 포용) 핀테크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심화를 지원 (Scott, 2020)

## 핀테크와 BigTech: 보완적 접근의 필요성

- ◆ 요약하면, 핀테크의 역할과 기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산업과 시장구조를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game changer)** 역할을 제공
- ◆ 한편 핀테크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BigTech 등 거대사업자(big player)에 의한 디지털 금융기능의 확대에 따른 유의적 시각이 대내외적으로 대두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에 의한 디지털 기반의 업무는 지급결제와 대출, 가상화폐(stable coins) 등 금융의 핵심기능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
  - 국내의 경우에도 네이버 및 카카오, 토스, 뱅크셀러드 등은 플랫폼 기반과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토대로 간편결제와 예대업무 등에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제고
  - 아직 BigTech의 금융서비스가 전체 금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특정 업무(예: 지급결제)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과 지역시장에 진출하는 등 집중화 경향도 존재(BIS, 2019)
- ◆ 또한 BigTech이나 초대형 플랫폼에 대한 유의적 시각은 금융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EU, Digital Services Act 2020)
- ◆ 핀테크의 건실한 성장을 촉진하고 BigTech 등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금융안정성의 제고**의 관점에서 잠재이슈를 미리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전반적으로 운영적 측면)

## 목 차

---

I. 서

II. 핀테크의 역할, 기대, 전망

III. Big(+fin)Tech와 금융성 점검

IV. Big(+fin)Tech과 금융산업의 잠재이슈

V. 금융안정성 제고와 정책적 시사점

## 잠재이슈와 금융성(the intrinsic rol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 ◆ BigTech 또는 팬테크의 대형화 등에 따른 잠재이슈 점검은 이들이 영위하는 금융적 특성이 금융산업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책임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 ◆ 금융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음(구본성(2020), p4)(**현재의 모습을 가정한 한계, 주요기능별로 논의**)
  -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money)을 조달(funding)
  - 자체 기반을 활용하거나 제3자의 대리(위임 또는 중개) 등을 통해 조달(separation of brokerage)
  - 조달된 자금 또는 부채(liability)의 상환을 영위하기 위한 운용 책임을 보유(fiduciary duty as a dealer & risk management)
    - \* 상환은 이자의 지급(deposit-taking), 위험의 보장(insurance), 자산운용(investment & asset management) 등 서비스특성과 관련
  - 자본금의 확보 등 건전성 책무를 부담(financial soundness)
  - 자금의 조달이나 중개, 운용 등에 있어서 위탁자(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보상 등을 보유(consumer protection)
  -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공동의 책임 및 역할을 분담(system stability)
  - 자금의 조달 및 중개,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시스템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의 유지 및 개선 등(infrastrucutre)

## 금융성 점검과 핵심 고려사항: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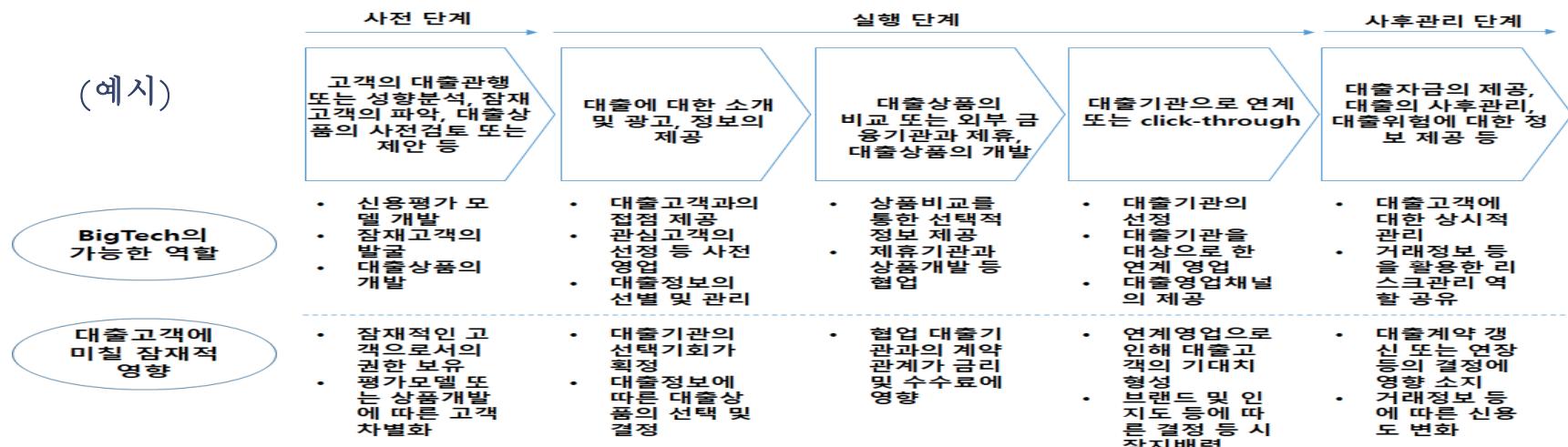
- ◆ 예대업무의 형태가 아닌 지급결제 분리는 결제자금의 일시적인 저장과 운용하는 수탁관리자 기능(구매자), 그리고 상거래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관리자(판매자) 역할을 영위
  - 반면 예대업무 형태는 중앙은행에 의한 최종대부자 기능과 예금보장제도에 의해 완결성을 보장
- ◆ 정보 관점에서 지급결제는 상거래 정보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관리 기능과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신용(금융거래)정보의 활용과 밀접히 관련
- ◆ 지급결제자금의 보호와 안정성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

지급결제자금  
보호와 안정성 장치:  
장·단점 비교

안정성 장치	기대효과	한계점
중앙예치기구(예: CCP) 활용	-결제실패의 완전한 방지 -결제기관의 부도위험 차단	-빅테크의 결제자금 활용 제한 -결제자금의 유동성 차단
신탁 등을 활용한 계좌별 분리 예치	-계좌 간 부도위험 전이 방지 -결제자금의 재활용 가능	-부도위험 잔존 -외부 예치자금의 추가적인 보호장치 필요
외부기관을 통한 통합 예치	-자체 자금운용과 구분 -결제자금의 재활용 가능	-부도위험 전이 -외부 예치자금의 추가적인 보호장치 필요
결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기능 추가	-예금으로 간주 -추가 보호장치로 시스템 안정성 제고	-실질적인 예금으로 간주(은행 업무) -자본 및 유동성 관리 등 견전성 규제 불가피

## 금융성 점검과 핵심 고려사항: 대출상품

- ◆ 대출 행위는 단계별 또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대출고객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 ◆ 특히 연계 대출이나 협업 형태의 대출 과정에서도 대출상품의 개발이나 사전검토, 제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고객에 미칠 수 있는 제3자적 효과에 대해 유의할 필요
  - 잠재고객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광고행위나 click-through 등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신용분석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 등 의사결정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 연계영업의 경우에도 플랫폼 등의 직간접적인 대출 책임이나 책무에 대한 점검을 필요



## 금융성 점검과 핵심 고려사항: 투자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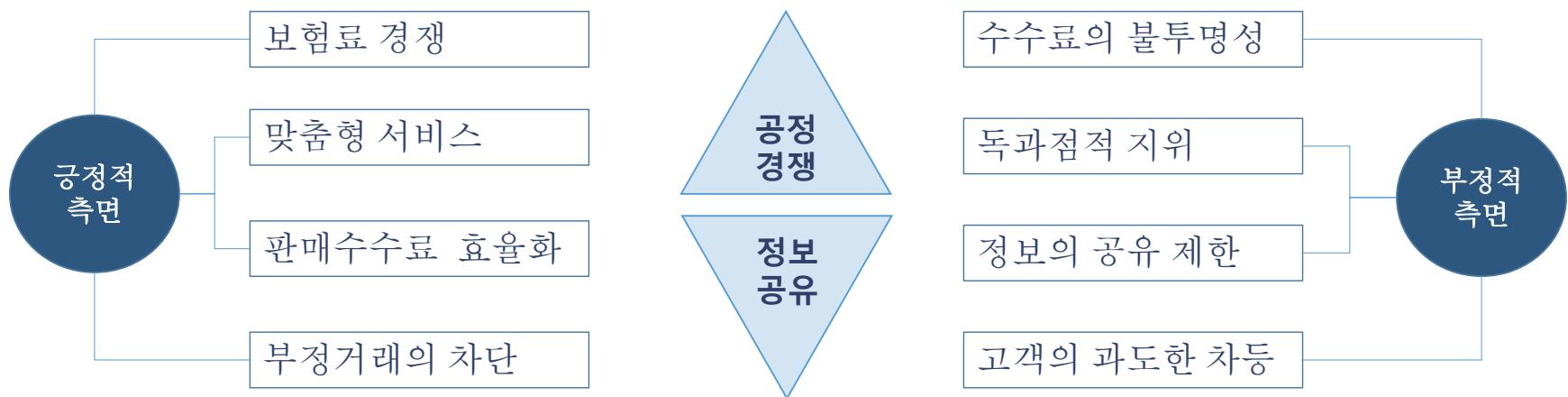
- ◆ 일반 또는 오프라인 투자상품 판매와의 규제차익이 초래될 소지
- ◆ 자사 상품과의 결합 등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긴요
- ◆ 계열사 간 거래에 따른 전이위험이 존재할 가능성
- ◆ 투자와 결제자금 결합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초래

투자서비스의 활용방식	BigTech의 전략적 기대효과	리스크 및 규제차익 등 잠재이슈
투자상품의 광고 및 소개	투자자 접촉 투자성향 파악 투자기관과 연계	투자상품 광고의 적합성 관리 투자기관의 안정성 검증 등 개인정보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
(자사) 투자기법을 활용한 추천	AI/ML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수수료 저비용 기반의 자문서비스 경쟁력 확보 결제와 투자의 복합상품을 통한 금융업무 확대	투자모델의 적정성 검증 투자성과에 대한 사후적 책임의 분담 소액투자의 영향력 약화
자사 투자상품에 대한 선별적 추천	자사 상품의 연계로 교차판매 기반 강화 예금상품 대비 경쟁력 확보 차별화 상품의 제공	이해상충의 문제 투자자의 선택권 제한 소지(self-preferencing)
(자사) 투자상품에 대한 자동투자	자회사의 판매기반 강화 보너스(bonus) 등을 활용한 수수료 창출 투자서비스를 통한 상거래 경쟁력 제고	추천 포트폴리오의 적정성 투자자의 적격성 검증 및 확보수수료 등 투명성 확보
(자사) 단기 투자상품을 통한 결제	수익률 개선으로 결제자금 규모의 확대 장기자금 조달기반의 강화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유사시 인출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험 증대 단기 결제자금의 투자상품 전환으로 투자위험 증대
(자사) 투자상품을 통한 모회사의 자금조달 참여	결제자금의 투자재원 활용(leverage) MMF/CMA/Wrap 등을 활용한 수수료 수입 모회사의 자금조달 지원	내부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위험 이해상충 문제의 소지(포괄적 측면) 우회적 자금지원 등 규제차익, 신용위험 전가

13

## 금융성 점검과 핵심 고려사항: 보험상품

- ◆ 대형 핀테크 및 BigTech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보험서비스의 경쟁촉진이나 보험요율의 적정화, 불법거래의 차단 및 방지 등에 기여할 전망
- ◆ 반면 사업비 등 수수료 비중이 타 상품에 비해서 높고, 보상서비스 등 **사후적인 고객서비스** 등이 긴요한 경우에 판매 위주의 핀테크(플랫폼) 모델은 고객효용을 저하시킬 가능성(**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
- ◆ BigTech의 정보력 및 디지털 분석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IoT 등과 결합한 실시간 보장서비스 등은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공정경쟁 또는 정보공유 문제를 초래할 소지



## <참고> 국내 대형 펍테크 또는 BigTech의 금융성

- ◆ 국내 대형 펍테크는 자회사 또는 연계 등을 통해 **그룹형 금융서비스**를 이미 제공
- ◆ 대출과 투자, 보험중개, 상품비교 등과 같은 **비은행 업무와 판매형 업무**에 초점
- ◆ 주로 개인고객을 중심으로 한 소매금융과 대출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N사	K사	T사	B사
간편결제 & 송금	Pay	Pay	Pay	Pay*
예대서비스	신용대출	예적금 신용, 보증금 대출	인터넷뱅크* 대출상품 비교	예적금 비교 대출상품 비교
투자서비스	증권계좌 CMA	증권자회사 증권계좌 소액투자	CMA, 해외주식, P2P 투자중개업*	맞춤형 상품 추천 부동산소액투자
보험서비스	GA	인슈어테크 손해보험사*	GA	맞춤형 보험 추천

\* 예비인가 또는 준비중

15

## 목 차

---

I. 서

II. 핀테크(Fintech)의 역할, 기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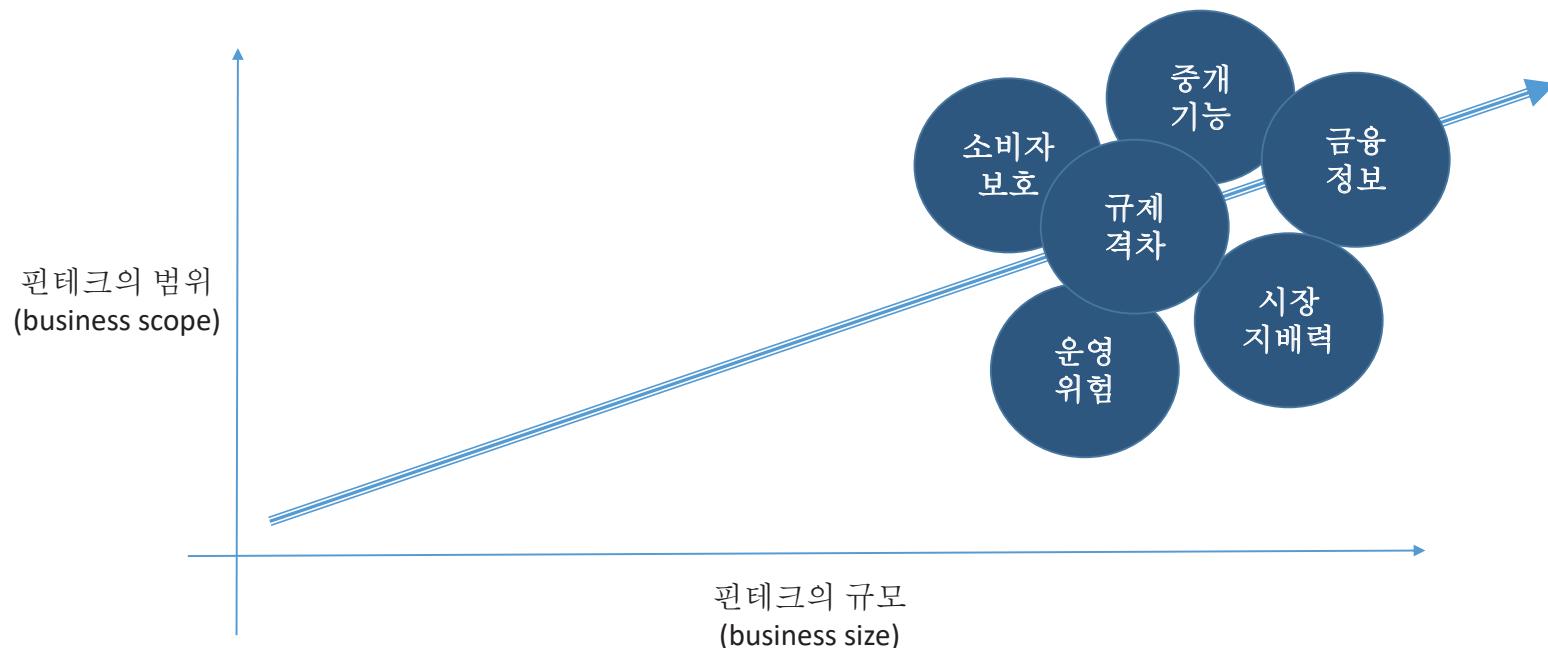
III. Big(+fin)Tech와 금융성 점검

IV. Big(+fin)Tech와 금융산업의 잠재이슈

V. 금융안정성 제고와 정책적 시사점

## 핀테크와 잠재이슈: BigTech 및 시스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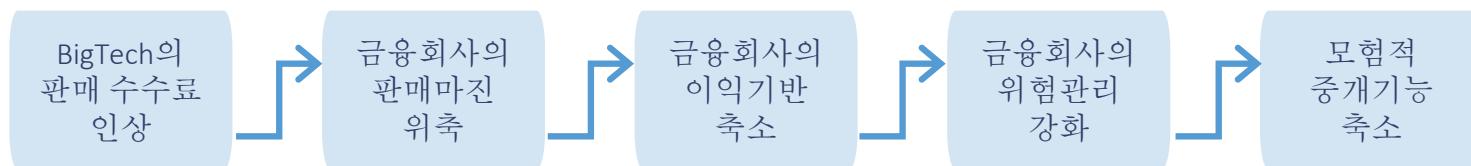
- ◆ 핀테크의 성장과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이슈는 주로 BigTech를 포함한 대형 핀테크와 밀접히 관련
- ◆ 잠재적 이슈는 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나 금융정보의 활용 및 관리, 시장지배력 확대와 소비자보호, 기존 금융규제와의 격차 등 규율 측면, 사이버 리스크 등 인프라 측면 등과 관련



## ① 중개기능의 위축 소지

- ◆ 펀테크의 활성화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fragmentation)를 심화시키는 등 중개기능의 양분화를 초래할 소지
- ◆ 양분화는 비금융기업의 경우 규제비용이 높은 금융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을 회피하거나 규제비용이 낮은 금융업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 양분화는 제조와 판매의 통합(예: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해 위험인수(risk-taking)에 따른 중개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판매역량과 재무기반(financial capacity)을 약화시켜 중개기능을 약화시킬 소지(subsidy + pricing effect)
- ◆ 또한 판매 또는 마케팅 중심의 BigTech 등은 금융소비자(예: 대출고객)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판매수수료에 초점을 둘 가능성

단기 판매·수수료 모델에 의한 중개기능 위축 (예시)



## ②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약화

- ◆ 판매중심의 서비스 모델은 접근성의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기존 금융기관에게 소비자보호 책임을 전가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위축될 소지
- ◆ 특히 제휴, 협업, 공유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BigTech 등에게 시장지배력을 활용함으로써 불공정한 서비스 책임을 요구하거나 전가시킬 우려
- ◆ 금융서비스의 단계별 행위규제나 전체 금융서비스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책임을 분담(consumer risk-sharing)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

### 제조와 판매의 통합: 소비자 책임

-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금융회사**가 전담
- 금융권 간 계약관계로 인해 교차판매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 부과가 용이
-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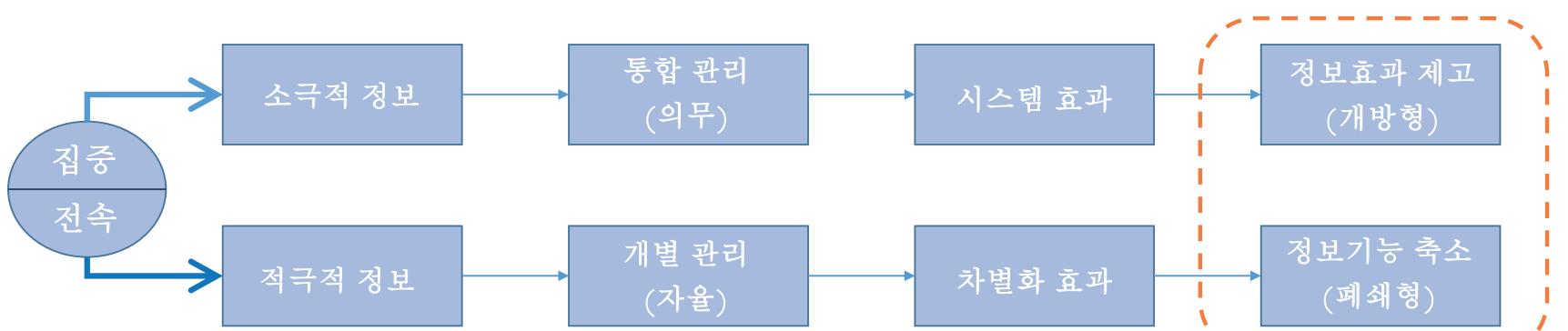
VS

### 제조와 판매의 분리: 소비자 책임

- 제조사와 판매사 간의 계약관계에 의존
- 다양한 상품/서비스로 인해 금융상품의 경우 제조사에게 금융소비자 책임을 전가할 유인
- 금융서비스의 완결보다는 고객소개 또는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금융적 역할**을 회피할 유인
- 판매 전 단계 또는 판매 단계에서 소극적

### ③ 금융정보의 독점과 포용성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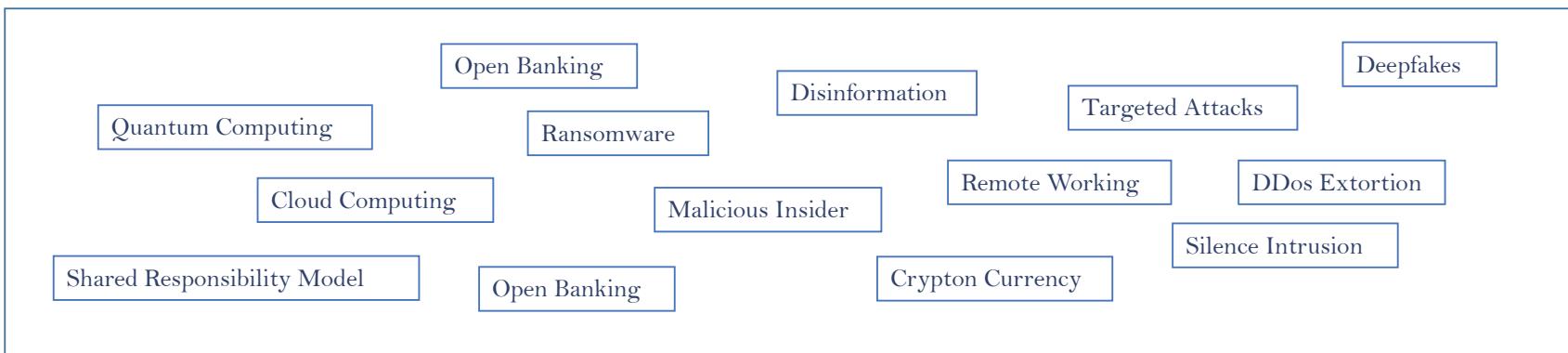
- ◆ 플랫폼 형태의 사업구조는 대형 펀테크 등에게 금융정보 이외에 비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축적, 활용 등에 있어서 기존 금융그룹 대비 우위를 차지
- ◆ 반면 플랫폼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유인이 낮고 외부기관과의 전속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협업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외부기관과의 정보 공유 또는 집중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축소될 소지
- ◆ 그러나 개인 또는 가맹점,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 또는 선택권을 충분히 갖는 것이 정보의 활용도와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socio-economic effect)
- ◆ 국내의 경우 Mydata 사업자 또는 종합지급결제업 등 정보 중심의 펀테크 모델을 통해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축적과 활용, 공유 및 집중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data right)이 강화될 필요



20

## ④ 사이버 위험 등 운용위험의 증대

- ◆ 대형 핀테크 등은 비즈니스 모델 경쟁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의 운영이나 보안프로그래의 개발 및 관리, 핵심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 **금융인프라를 관리·통제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제고
- ◆ 경쟁 촉진에 따른 비용절감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BigTech 등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소지
- ◆ 결국 고객 및 정보의 집중화, 오픈파이낸스, AI 및 ML, IoT와의 연계, 생체인식 등 디지털화 확산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차원의 운용위험**이 증대될 전망
  - 사이버 위험의 관리와 통제는 대고객 서비스에 따른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킹, 사기, 피싱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도 존재한다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유지에 핵심과제가 될 전망



## ⑤ 규율 격차로 시스템 취약성 확대

- ◆ 금융업무와 비금융업무를 결합한 모델은 금융의 고유한 역할에 비해 비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 지급결제기능의 경우 유통업 등 상거래 촉진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 ◆ 대출업무의 경우에도 인허가 측면의 낮은 제약으로 인해 상거래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로 확산
  - 비은행업무 또는 비은행기관을 주로 활용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확대
- ◆ 우리나라의 경우 특례조치 등으로 인해 은행업무를 포함하는 플랫폼 복합금융그룹이 나타나는 등 금융과 상업의 결합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
- ◆ 복합금융의 확대는 금융과 실물 간 유지되어 온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복합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규율체계로 전환될 필요

상거래 촉진  
(금융의 종속화)



그림자금융  
(규제차익)



복합그룹  
(시스템 위험)

## 목 차

---

I. 서

II. 핀테크(Fintech)의 역할, 기대, 전망

III. Big(+fin)Tech의 금융성 점검

IV. Big(+fin)Tech와 금융산업의 잠재이슈

V. 금융안정성 제고와 정책적 시사점

## 핀테크의 발전과 금융안정성 제고: 전제조건

1

핀테크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지고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협업적 관리)

2

핀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는 금융의 고유한 성격(“금융성”) 관점에서 재평가(수용)되어야 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중개기능의 고도화에 기여도록 지원

3

핀테크의 금융역할 분담은 금융소비자와 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당사자적 책임 혹은 제3자적(사회경제적) 책임을 분담

4

핀테크의 혁신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관행),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규율·감시체계 등을 구축

## 대형 BigTech에 대한 차별적 규율과 안정성 평가

- ◆ 전문형 팬테크와 구분하여 통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팬테크에 대한 그룹적 관점이 필요
- ◆ 플랫폼의 상거래와 금융거래가 복합, 연계되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 금융인프라의 집중화에 따른 시스템 차원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 마련도 필요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회사 등을 통한 금융업 진출을 고려한 그룹 차원의 건전성 관리</li><li>• 복합금융그룹에 준하는 안정성 평가 검토</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금예치, 대출, 개인정보의 활용 등을 통한 상거래 행위의 고객위험 및 내부통제 규율</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산시스템의 운용이나 데이터 관리 등 관련 운영위험 관련 자본금 규제 등</li></ul> |
|---|---|--|

## 금융소비자 책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 개별 인허가를 통해 핀테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등 규제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
  - 판매 중심의 핀테크 모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에 불투명한 측면이 내재
- ◆ 금융소비자의 선택과정을 고려한 책임과 규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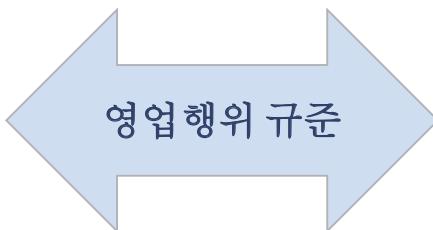
- |                                |                                |   |
|--------------------------------|--------------------------------|---|
| • 온라인 표시 및 광고의 적정성 또는 준칙       | • 금융상품의 소개, 비교 및 공시 기준 등       | • 사후 보상이나 문제의 발생 시 해결절차 마련 등                |
| • 금융 및 개인정보의 축적 및 <b>보호 원칙</b> | • 금융서비스 제공 목적의 마케팅 관행의 규율      | •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또는 <b>사후보상 체계</b> 의 마련 |
| • 금융정보의 분석 및 활용의 <b>적정성</b> 기준 | • 핵심정보 및 금융위험 등의 <b>고지의무</b> 등 |   |

## BigTech 등의 금융서비스 투명성 제고

- ◆ 간편결제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 형태에서 자문 및 대출, 보장, 연금 등 고부가(hight-value, high-skill, high-risk) 서비스로 확장될 전망
- ◆ 고부가 서비스 확대는 플랫폼의 주요고객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서비스의 비용 등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 연계 및 협업 방식의 영업에 있어서도 제휴기관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융소비자의 이익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영업행위 규준(예: EU의 일반기준)을 확충할 필요

### 소비자에 대한 영업준칙

- 금융상품의 선정 기준 등의 공시
- 금융상품의 수수료 체계 공시
- 자회사 상품의 유무 등 금융상품 선택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의 권한 및 보호 절차 및 보상기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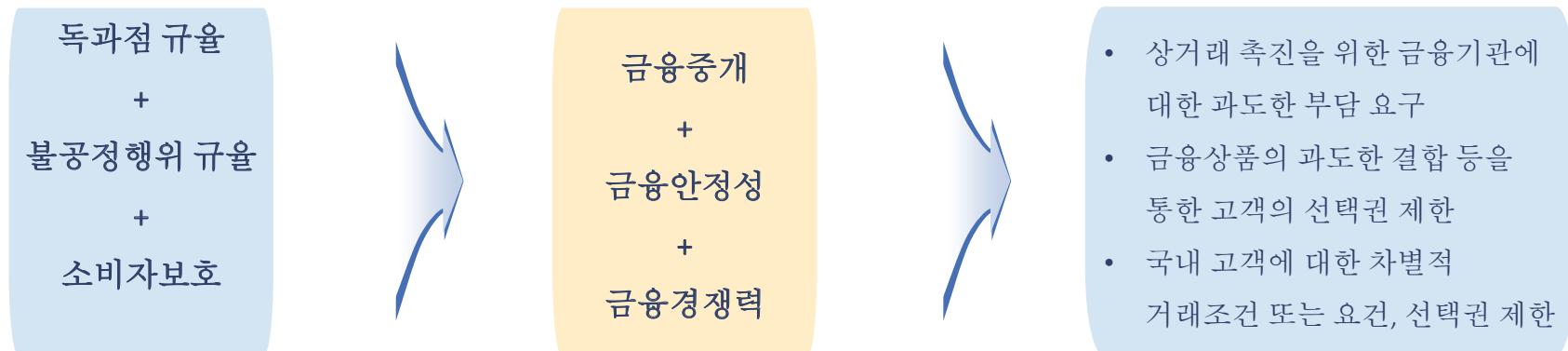


###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준칙

- 제휴 금융기관과의 거래 원칙
- 제휴 금융기관과의 협업 사항(예: 대출심사 또는 신용평가기준의 마련, 수수료 결정 등의 적정성)
- 제휴 금융기관의 권한과 책임 분담 조건 등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규준 마련

- ◆ BigTech을 중심으로 한 일반 업종에 적용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원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디지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유지
- ◆ 글로벌 BigTech의 진출이나 국경간 거래의 확대 등이 국내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
- ◆ 특히 금융서비스는 상거래 등과 맞물려 인프라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금지행위(negative) 방식의 규율(easily implemented)도 고려



## 맺음말

- ◆ 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은 비즈니스 모델과 전문화, 기술력을 토대로 한 벤처형 모델에서 점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근간한 성장형 금융모델 단계로 전환
- ◆ 이와 같은 펀테크의 성장과 시장입지 강화는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규모의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펀테크의 확산은 경쟁을 촉진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됨.
  - 대형 펀테크를 중심으로 한 시장지배력 확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인프라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
- ◆ Big(+fin)Tech가 주도하는 성장구도 하에서는 금융중개기능의 지속가능성이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분담,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비대칭 규제, 금융정보의 독점가능성, 사이버 리스크의 집중, 자금세탁 등과 같은 신뢰도 유지 등 잠재이슈와 관련된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
- ◆ 장기적, 선제적, 유의적 관점에서 복합금융그룹 차원의 안정성규율,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규율, 금융상품의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행위규율, 금융서비스와 연계된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초점을 둔 경쟁규율 등 복합형 금융규율체계의 마련이 요구

## <참고문헌>

---

- ◆ 구본성 (2020),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내부자료, 한국금융연구원
- ◆ 구본성, 이순호(2020),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개관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KIF 연구총서 2020-01, 한국금융연구원
- ◆ Frost, J. (2020), The Economic Forces Driving Fintech Acquisition across Countries, DNB Working Paper, No. 663, De Nederlandsche Bank
- ◆ Philippon, T. (2020), On Fintech and Financial Inclusion, BIS Working Paper, NO. 841, BIS
- ◆ Scott, A. (2020), Fintech: Overview of Financial Regulators and Recent Policy Approaches, CRS Report, R4633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감사합니다.